

I. 시작하는 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막내 아들이 갑자기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이 막내 아들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고, 아버지는 그 분깃을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였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 먹고 살아야 하여서 한 사람 밑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생각이 났고 아버지를 뵈면 목이 없자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 정도로만 여겨 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겨주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또 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여러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 염소 새끼라도 나와 내 벗을 위해 즐기게 하신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해 버린 둘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설득하며 잔치가 함께 가자고 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II. 중심 말씀

1.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의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머칠이 안 되어 먼 나라로 갔을 첫날부터 그것을 탕비하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의 아래 있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만족하며 살았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이 말해주는 방향으로 세상이 말해주는 목적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더 영리하고 빨라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힘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에게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시간이 곧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2. 진짜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인 것이죠. 첫째 아들은 마음속에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도 차라리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해서 잔소리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첫째 아들은 자기가 힘든 것은 알았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면 탕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3.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요? 자식이 자기를 떠난다고 하는데도 떠나게 하고 자식이 자기에게 항변을 하는데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간 집을 나간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 하나 헤아리지 않으면서 자기 일에 바쁜 첫째 아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백마리 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은 자도, 열 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는 이들도 잔치를 벌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잃었다 찾은 것은 경제적 가치 너머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III. 정리하는 말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래도 살 것인지 가장 좋은 것을 믿음의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찬송가 425장)

- (1)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 (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 (3)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 (4)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송가 94장)

-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 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찬송가 323장)

- (1)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 (2)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야김 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야김 없이 드리리다
- (3)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